

8. 오가신잔 전승관: 공연, нама하게 장부 이야기: 며느리

다음으로 нама하게는 이치로의 엄마 미쓰코에 대해 이야기합니다. 가장은 아들의 아내인 미쓰코를 매우 마음에 들어 하고 부지런하고 착한 며느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아들과 미쓰코는 결혼한 지 15 년이 됩니다. 미쓰코는 다른 마을 출신이지만 이 마을의 일원이 되기에는 충분하고도 남을 세월이죠. 하지만 нама하게는 미쓰코에게 트집을 잡고 싶은 것 같습니다. 미쓰코가 일찍 일어나서 가족의 아침 식사를 차리지 않는다고 비난합니다.

가장은 어머니가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일부러 집안일을 분담하여 아침 식사 준비는 가장의 어머니가 하는 것으로 정했다고 주장하지만, нама하게는 이를 핑계라며 일축하고 미쓰코가 종종 친구들과 밤늦게까지 외출한다는 사실을 밝힙니다. 하지만 가장은 항상 일찍 잠들기 때문에 이 사실을 몰랐다고 말합니다.

나마하게는 더욱 조바심이 나서 다시 주인의 집을 수색하겠다고 위협하면서 집 안을 돌아다닙니다. 가장은 가족을 감싸고자 당차게 맞서며 нама하게에게 장부를 집어넣고 술을 더 마실 것을 간청합니다.